

##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등 현안 대응과 함께, ❶인구구조, ❷기후, ❸기술 변화(“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새로운 금융”) 모색할 것“
- ▶ 참석 전문가, “2040년까지 청년인구(19~34세) 약 31.6%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35%로 최대”, “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 서둘러야” 등 제언

금융위원회는 2024.2.7.(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2.7.(수) 14:30~16:30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F)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발심위원장 등 금발심 위원, 서울대 조영태 교수 등

이날 금발심 회의에서는 새롭게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4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 하였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비전으로, ❶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❷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❸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24년도 업무계획의 3대 핵심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9개 분야의 주요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 한해에도 산적인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서, 특히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하여 우리 증시가 재평가 받는, 레벨업 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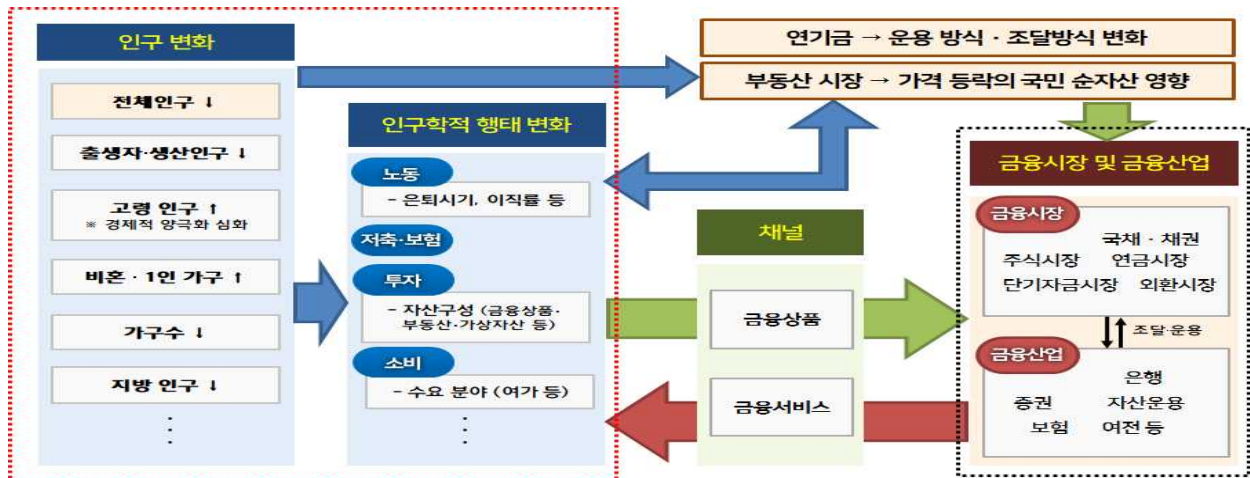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①인구구조 변화, ②기후변화, ③기술 도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우리경제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금발심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 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생산연령 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변곡점에 와있다. 특히, 앞으로 15년 가량 뒤인 2040년에는 청년인구(19~34세)가 31.6%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34%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에도 과거와 부채·소비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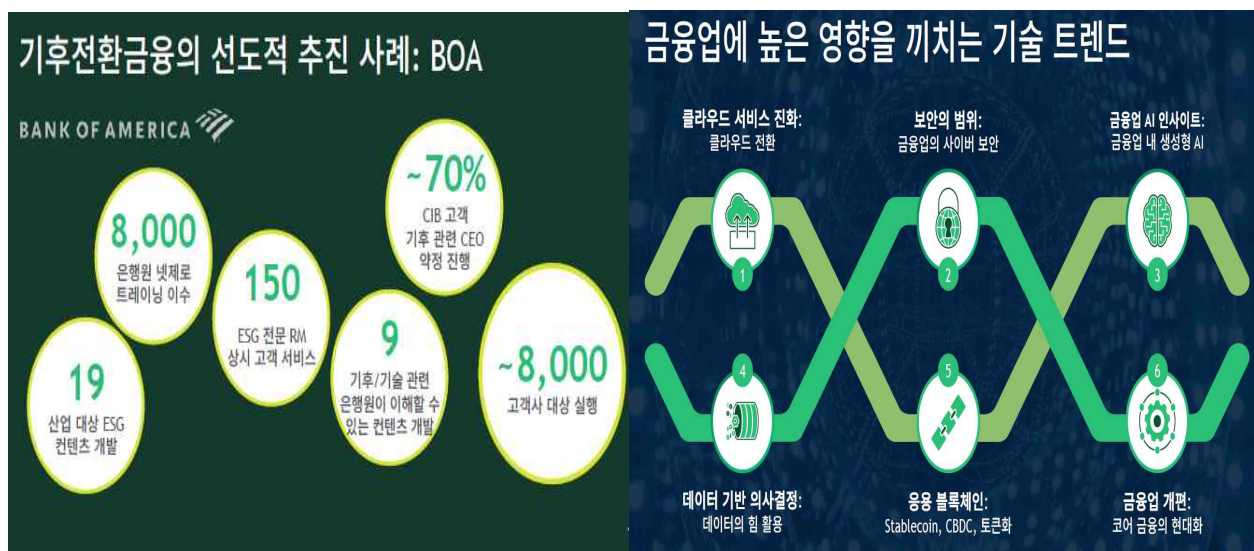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2022) 중위 시나리오 기준

##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개념도)>



※ 자료 : 금융위 인구변화 대응 TF

박영호 금발심 위원(Boston Consulting Group 파트너)은 「기후·기술과 금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는 금융권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BOA는 기업금융 직군 8천명이 기후 전문가로 변신하여 기업의 탈탄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골드만 삭스는 AI 도입으로 애널리스트 15명의 4주치 작업을 5분만에 처리하게 되었다”고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AI 등 첨단기술이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안동현 금발심 위원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금발심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 하여, 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새로운 도전’)을 정밀하게 분석 하고 대응방향(‘새로운 금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거대한 변화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금발심 위원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하였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_새로운 도전-새로운 금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양병권 (02-2100-2831)
			사무관	오동헌 (02-2100-2892)

## 참 고

##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 (4개 분과 50명) 신규 7명

분 과	성 명	현 직위	성 명	현 직위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14명)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석길	JP모건 서울지점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안성배	KIEP 대외협력부원장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금융산업·혁신분과 (12명)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대선	송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대우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김홍선	SC제일은행 부행장
	박해랑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박철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 분과 (12명)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정인석	다이와증권 FICC본부장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권재민	S&P 한국대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환	대안경제연구소 소장	박용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소비자 서민금융 분과 (12명)	박순철	박순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종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홍재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박영호	BCG 파트너

### ※ 당연직 위원(13명)

- 금융위원회(7명) :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부(2명) :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 산업통상자원부(1명) : 산업정책관
- 기타(3명) :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이사